

##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요소와 가정과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연구

양지선\* · 유태명\*<sup>1)</sup>  
경상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과\*

---

### Relations of Key Competencies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Yang, Ji Sun\* · Yoo, Tae myung\*<sup>1)</sup>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omponents of key competencies and its relations with Home Economics curriculum through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e literature total of 26 relating to key competencies is collected from two research institutes(KICE, KEDI) and two academic Journals(KSCS, KHEEA). The results show, first, every countries suggested different categories and components of key competencies according to classification of DeSeCo report(OECD, 2005). In subject matter, intellectual and learning capacities are emphasized; where as in inter-disciplinary or trans-disciplinary areas promoting character and competencies are focused. Second, ideal portraits of human being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is not closely related with those in a national curriculum. Third,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stated aligned with competencies, goals and curriculum contents, standards.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curriculum design framework that teaching · learning process incorporates knowledge, skills, and strategies relating other subject areas.

**Key words:** 가정과(home economics), 역량중심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 핵심역량(key-competency)

---

---

1) 교신저자: Yoo, Tae myung, 501 Jinjudaer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Republic of Korea  
Tel: 055-772-2241, Fax: 055-772-2249, E-mail: franco@gn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세계 각국의 교육 추세는 미래사회의 준비라는 보편성을 내세우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체계로 개편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습자가 실제 상황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생성하고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 삶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조정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역량(competency)라는 개념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가정과 교육이 직업교육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직업을 위한 준비 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결정하고 이러한 과업들의 달성에 요구되는 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능력중심교육방법(Competency-based education, CBE)이라고 한다(Lee, 2006). 능력중심교육에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의 목록을 작성하는 과업분석(task analysis)과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나타내주는 능력(competency)을 분석하는데, 주로 직업 상황에서의 수행해야 할 업무와 가정을 관리하는 과업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역량은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었으며,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Spencer와 Spencer(1993)가 정의한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뿐만 아니라 가치, 동기, 특질 등 비인지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 일어났던 능력중심 교육운동에서의 능력(competency)과 최근 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량(competency)은 같은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능력중심은 직업적 수행능력의 의미에, 역량중심은 내재적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 가깝다.

‘역량’이라는 용어가 다시금 재개념화된 것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수행된 OECD(2002)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많은 역량 가운데 삶

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의 역량으로 구조화하고 3개 범주로 9개 영역을 설정하여 ‘핵심역량’으로 규정한 이후이다. 여기서 ‘역량(competency)’은 지적 역량(literacy)뿐만 아니라 존재적 차원(being dimension)의 관계적 역량(relationship), 주체적 자율성(autonomy)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ECD 프로젝트 이후 역량이라는 개념은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교육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년간에 걸쳐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인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Yun, Kim, Lee & Jeon, 2007; Lee, Min, Jeon, Kim & Kim, 2008; Lee, Jeon, Hu, Hong & Kim, 2009)를 수행하였다. 점차적으로 교육과정 구상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Lee, Kwak, Lee & Choi, 2012; Lee et al., 2013)들이 이루어졌으며, Lee et al.(2009)연구와 맥을 같이하여 실과(기술·가정)과에서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Choi, Yoo, Moon, Choi & Kang, 2009)가 수행되었다. 2015년 4월에 개발된 개정시안(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의 경우 가정과가 담당하는 핵심역량과 핵심개념을 명확히 하고, 핵심역량과 핵심개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Shon(2006)과 Sung(2014)은 학문체계 중심으로 조직되는 교육과정의 틀을 학습의 결과로서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개편한다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체제와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관점과 조직원리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핵심역량 담론과 실제 교육과정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역량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짧지만 국가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역량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데 걸림들은 학문/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온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도입을 고려한 국가기관의 역량 관련 연구들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Ministry of Education(2014)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중심교육

과정으로의 전체적인 전환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의 핵심역량 연구는 역량의 개념과 역량의 요소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과정 개발에 요구되는 여러 교육과정 요소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역량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부분으로 구성되든 앞으로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든 가정과에서 역량은 교육과정의 다른 요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역량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게 한다는 데 역점을 둔다. 역량과 교육과정의 요소와의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도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이 요소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점과 차이가 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개인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well-being),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하고 복잡한 요구나 과제를 해결하는 도구적인(instrumental) 역량,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적절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행복, 개인과 가족의 행복, 가족과 사회의 행복을 다루고 있는 가정과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Chae, Lee와 Yoo(2010)는 미래의 가정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서로 존중하는 전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핵심역량은 가정교과의 성격, 목표, 추구해야 할 인간상, 내용 및 교수·학습까지 아우르며 학습자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DeSeCo 프로젝트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과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핵심역량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들은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결과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정과교육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둔 문헌연구로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내용 1. DeSeCo 프로젝트와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을 분석한다.
- 연구내용 2.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요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가정과교육에의 시사점을 탐색한다.

## II. 문헌고찰

### 1. 핵심역량의 개념 및 대두배경

역량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반부터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기업부문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정치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 교육분야까지 활용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역량에 대한 정의는 직무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현대적인 역량(competency)의 개념을 정립한 사회심리학자인 McClelland (1993)는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것이 지능보다 역량과 관련 된다고 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되었던 역량의 개념을 Spencer와 Spencer (1993)는 어떤 직무나 상황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 내적인 특성'으로 규정하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식이나 기능적인 특성을 넘어 개인의 동기, 특질, 자아개념과 같은 심층적인 특성까지 포함하여, 역량을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기술'과 '지식'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표층적 성격의 요소인 반면, '자아개념', '특질', '동기'는 쉽게 개발하기 어려운 심층적 성격의 요소라 하여 심층적 성격의 요소가 표층적 성격의 요소에 비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개발이 수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가치, 동기, 특질처럼 비인지적인 측면의 요소까지 심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역량은 수행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만 추론될 수 있고 단기간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조작적인 정의와 관찰과 측정이 용이한 지식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는 역량접근이 대세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cClelland(1973)는 실제 수행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Spencer와 Spencer(1993)는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OECD(2002)는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So(2007)는 역량이란 외적 요구, 개인의 내적 구조, 맥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하여 구축되며, 세 가지 요소들이 유능한 수행이나 효과적인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통합되고 서로 관련지어지는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Lee et al.(2009)은 역량을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 Lee et al.(2012)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개념으로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교육개혁을 이끄는 핵심기치로 역량담론이 새롭게 부활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지식이 개인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국가경쟁력은 지식의 가치 창출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개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역량’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Park, 2009).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요구들을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지적인 측면과 비지적인 측면을 포함)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Rychen & Salganki, 2003)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역량

은 인지적 측면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 동기, 태도, 판단, 의지와 같은 다양한 인간 능력과 자질을 포괄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역량의 구성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적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총체로 존재한다(Rychen & Salganik, 2003).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량이 가시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질’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역량이 발휘되는 맥락이 직업뿐만 아니라 삶의 복잡한 상황들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역량의 의미가 좁은 의미의 기초기능에서 점점 복잡해져 가는 사회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표면적, 심층적 능력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역량관련 선행 연구 고찰

역량은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접목되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핵심역량 연구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학문의 이론적 배경 및 가치 측면에서, 교육과정 설계 측면에서, 교육과정평가 및 실천과의 연계 측면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학문의 이론적 배경 및 가치 측면의 연구들은 특징 및 쟁점(Shon, 2006; Song & Park, 2007; Sung, 2014), 교육과정적 함의(Park, 2009; So, 2007; So, 2009; So,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역량의 개념이나 쟁점들을 비롯하여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들로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설계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영역설정에 관한 연구(Yun et al., 2007; Cho, Kim & Kim, 2008; Lee et al., 2008), 교육과정 구상 및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So, 2006; So, 2015; Lee et al., 2012; Lee et al., 2013)들이 있다. 교육과정의 구상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개발의 큰 흐름으로 연구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분석을 통해 근거와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여 종합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영역설정 및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Yun et al., 2007; Cho, Kim & Kim, 2008; Lee et al., 2008; Lee et al., 2012; Lee et al., 2013)들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 델파이, 설문조사연구, 전문가 협의의 순으로 진

행되었고, Lee et al.(2012)과 Lee et al.(2013)은 앞서 사용된 연구방법에 사례연구가 추가되었으며, 그 외 연구(So, 2006; So, 2015)들은 문헌 및 사례연구로 수행되었다.

셋째, 교육과정과정 평가 및 실천 연계측면에서의 연구들은 세계 각국의 역량교육과정 추세와 운영실태를 살펴본 연구 핵심역량과 관련된 수행 및 성취기준(Paik, 2014; Paik & Ohn, 2014)에 관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역량교육과정으로 개편한 다른 국가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연구들로서 사례연구(Park, 2009; Hong, Lee & Lee, 2010; So, 2011; Lee et al., 2013; Paik, 2014)와 문헌연구(Paik & Ohn, 2014)로 수행되었다.

핵심역량과 관련한 연구들은 국가교육과정연구에 있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가정과에서는 재구조화 방안을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진행한 연구(Choi et al., 2009), 문헌분석 및 전문가협의를 통해 성취기준을 개발한 연구(Jin et al., 2013), 교육과정 개발방향을 탐색한 연구(Kwon et al., 2013)가 진행된 바 있으며 진로부분에서 문헌 및 분석연구로 직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연구(Jang, 2014)가 있다. 가정과에서의 연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몇의 연구에 국한되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과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와 교육과정의 한 요소인 성취기준과의 연계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과정 개발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른 교육과정 요소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문헌고찰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료

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5개 국가의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핵심역량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핵심역량과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들을 보기 위해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문헌들과 한국교육과정학회(KSCS)와 한국가정과교육학회(KHEEA)에서 출간되는 학회지에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문헌자료를 수집하였다.

두 국가 연구기관과 두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역량’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영역설정 4편, 설계방안 3편, 재구조화 방안 1편, 해외사례분석 1편, 운영방안 2편, 총 11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외국동향 1편, 이론적 배경 1편, 총 2편과 한국교육과정학회(KSCS)에서의 성격 및 의미 3편, 쟁점 3편, 현장 적용 1편, 성취기준 2편, 이론적 배경 1편, 설계과정 1편, 총 11편, 한국가정과교육학회(KHEEA)에서의 진로관련 1편, 교육과정개발 관련 1편, 총 2편의 선행연구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26편의 자료들이 대상이 되었다.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들 중 이전 문헌이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요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활용한 연구들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핵심역량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기 위해 개별 연구물에서의 핵심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여 주제/쟁점을 범주화하고 주제/쟁점별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은 문헌의 선정이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을 주관해온 관련 기관의 연구물과 국가교육과정 개발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담당해온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교육과정연구」와 가정과 교육과정 논의를 주도해온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논문인 1

Table 1. Topic classification of data

Classification Source	Theoretic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Issue	Categorization	Design planning	Organization planning	Foreign case & implementation	Achevment standards	Career
KICE			4	3	1	3		
KEDI	1					1		
KSCS	1	3/3		1		1	2	
KHEEA				1				1
합계	2	6	4	5	1	5	2	1

차 자료로 선정하여 타당한 자료의 선정 측면에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LeComte와 Preissle(1993, 323; Lee, 2007, 322 재인용)이 자료의 타당성의 요소로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확실성(공정성을 포함하는 요소), 자료의 의존성(믿을 수 있음)을 충족시킨다. 또한 다량의 문헌을 양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두 명의 연구자들은 문헌자료를 한편씩 각자 읽고 각 문헌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행연구와의 중복이 없는지 논의한 후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신뢰성이 강조되는 실증적인 문헌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각 문헌에서 핵심역량은 교육과정의 어떤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지, 각 문헌에서 관련 지어 논의한 주제/쟁점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주제/쟁점은 범주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임의적인 주제/쟁점의 분류를 피하고 차후의 핵심역량 연구의 경우 또는 타교과에서의 핵심역량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DeSeCo 프로젝트와 각 국의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핵심역량

#### 1)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 능력이자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으로 정의한 OECD(2002)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비판적 사고,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서 핵심 역량을 ‘도구 활용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자율적 행동 역량’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다시 세 범주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세 범주의 영역별 하위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역은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 활용 역량(using tools interactively)으로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언어, 상징, 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능력, 지식과 정보

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능력 등이 포함된다. 둘째 영역은 이질적인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으로 이질적인 집단의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관계 능력, 협업 및 협동 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영역인 자율적 행동 역량(acting autonomously)은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책임이나 권익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사회 경제적 규범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신의 인생계획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와 필요 등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 2)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뉴질랜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핵심역량을 자국의 맥락에서 재개념화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뉴질랜드 교육과정은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재조정하고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 경우 ‘자신감 있는 학습자, 결속력 있는 학습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학습자’(confident, connected, actively involved, lifelong learners)를 교육목표이자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어, 예술, 건강과 체육교육, 언어,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 기술의 8개 교과기반 학습영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서 교과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타인과 관계맺기, 참여와 기여, 사고하기, 언어와 상징·텍스트의 사용의 5개 핵심역량 함양을 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역량요소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첫째, 사고역량은 창의적, 비판적 사고 및 메타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핵심적 구성 요소는 지적 호기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색, 활용, 창조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을 반성하며 기존의 사고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이다. 둘째, 언어, 상징, 텍스트 사용역량은 다양한 맥락 속에 제시된 단어, 숫자, 이미지, 울

등, 은유(metaphor), 테크놀로지 등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인의 이해를 돕고 적합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상징,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셋째, 자기관리 역량은 자기 동기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 능력 있는 학습자라는 자신감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립적이고, 자신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넷째, 대인관계 역량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진취적이고 재치 있고 믿음만하며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다섯째, 공동체 참여 및 기여역량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안녕과 번영에 공헌하고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며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참여할 수 있고 권리, 역할, 책임에 대한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며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07).

여러 국가 중에서 DeSeCo 프로젝트의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국가는 뉴질랜드이다. ‘도구 활용 역량-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과,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역량-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기여’, ‘자율적 행동 역량-자기관리’와 일치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는 뉴질랜드는 사고력을 별도의 범주로 독립시키고 있지만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사고력을 모든 역량의 공통요소라고 보고 있다.

### 3) 호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성공적인 학습자(successful learners),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confident and creative individuals), 능동적이고 교양 있는 시민(active and informed citizens)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ACARA, 2013).

호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핵심역량(core competency/key competency)’이라는 용어 대신 ‘일반역량(general capabili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역량은 교과에 관계없이 개발시켜야 할 능력, 교과 공통 핵심역량을 뜻한다. 호주가 제시한 7가지 일반역량은 ‘문해력’, ‘수리력’, ‘ICT 활용능력’, ‘비판적·창의적사고’, ‘개인·사회능력(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윤리적 이해’, ‘간문화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이다

(ACARA, 2013). 7가지 역량에는 조직요소가 있는데 문해력의 경우 텍스트지식, 문법지식, 단어지식, 시각지식이며, 수리력은 패턴과 관계를 인식하고 이용하기, 분수, 소수, 백분율, 비율 및 속도 사용하기, 공간추론사용하기, 통계정보해석하기, 측정사용하기이며, ICT 활용능력은 ICT와 조사하기, ICT로 만들기, ICT와의 통신, ICT 관리 및 운영이 조직요소이다.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은 알아보기와 파악하기, 정보와 생각을 탐구하기와 조직하기, 아이디어와 가능성, 행동 만들어내기, 생각과 사고에 반영하기, 분석하기, 종합하기, 추론과 과정 평가하기이며, 개인·사회적 역량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 인식, 사회 관리가 조직요소이다. 윤리적 이해는 윤리적 개념과 이슈를 이해하기, 의사 결정과 행동에서 추론하기, 가치·권리와 책임을 탐구하기이며, 다문화이해는 문화인식하기와 존중개발하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와 공감하기, 다문화에 관한 경험을 반영하기와 책임감 가지기가 조직 요소이다.

7가지 일반역량과 함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의 역사와 문화(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istories and cultures), 아시아 및 아시아와 호주의 참여(Asia and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3가지 범교과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범교과 과정은 학습영역의 관련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교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역량 안에서 다룬다(ACARA, 2013). 또 호주 교육과정에서 일반역량과 학습영역과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예를 들면 과학, 역사, 수학에서 청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능력뿐 아니라 문해력을 강조하며 교과지식과 기능 간의 연결성을 중시하고 있다.

### 4) 영국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영국의 경우는 ‘성공적인 학습자(successful learner), 자신감 있는 개인(confident individuals), 책임 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s)’을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개념(key concepts)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의 적용(application of number), 정보 테크놀로지(information technology), 타인과의 협력(working with others), 자신의 학습과 수행의 향상(improving own learning and performance),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등 여섯 가지 핵심기능을 나타낸다.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은 ‘역량’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세계, 학습,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기능들을 교육과정의 주요구성요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중심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교육과정에서는 Key stage 3과 4에서 교과학습과 더불어 실용적 기능(functional skills-FS)과 개인, 학습, 사고기능(personal-learning-thinking skills-PLTS)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적 기능과 개인·학습·사고기능은 사회, 경제,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대처하고 모든 삶의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평생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들로 뉴질랜드의 핵심역량이나 퀘백주의 범교과 학습역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S는 영어, 수학, ICT 활용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관련 교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학습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PLTS에는 독립적 탐구자(independent enquirers), 창조적 사고자(creative thinkers), 협력력자(team workers), 자기관리자(self-managers), 유능한 참여자(effective participants), 반성적 학습자(reflective learners) 등 6가지 기능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독립적인 학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과나 실용적 기능의 학습과정에서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07).

2013년에 발표된 새 교육과정에서는 FS와 PLTS 대신 초중등교육과정의 주요구성요소로 수리 및 수학적 사고역량( numeracy and mathematics)과 언어와 문해력(language and literacy)을 설정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수리 및 수학적 사고역량의 하위요소로는 계산능력, 측정능력, 작업에 대한 이해와 평가능력, 기하학과 대수학에 대한 이해, 확률적 사고, 데이터수집·제시·분석 능력 등이 포함된다. 언어와 문해력의 하위 요소로는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이 포함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같은 것으로 학교의 모든 학습경험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범교과 학습역량이다.

5) 캐나다 퀘백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캐나다 퀘백주에서 역량이란 규격화된 상황에서 틀에 박힌 지식과 기능을 재현하는 재생능력이 아니라 복잡한 과제수행

맥락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인지적, 반성적 성찰과정을 수반하는 복합적 능력으로 보고 있다(Park, 2009).

퀘백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역량요소는 범교과적 역량(cross-curricular competencies)과 포괄적 학습영역(broad areas of learning), 교과 영역(subject areas)의 세 가지로, 각기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간의 상호연계를 특별히 강조하고, 이들 세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퀘백 교육과정의 목표인 학습자의 자아정체성 형성(construction of identity), 임파워먼트(empowerment), 세계관의 형성(construction of world-view)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교과적 역량은 인지적(intellectual), 방법론적(methodological), 개인적·사회적(personal and social), 의사소통 관련(communication-related) 역량의 4가지 범주, 9가지 요소로 구성된다(Ministère de l'Éducation, 2004; Hong & Lee, 2011).

인지적 역량에는 정보활용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판단력과 창의력이, 방법론적 역량에는 효과적인 방법의 활용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개인적·사회적 역량에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타인과의 협동이, 의사소통 관련 역량은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이 포함된다. 포괄적 학습영역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퀘백 교육과정의 이념을 보여주는 측면으로서, 건강과 행복, 진로 발달, 시민의식 함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요소와의 통합과 연계를 강조하면서 교과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전체 15개의 교과가 다섯 개(언어, 수학·과학 및 공학, 사회, 예술, 개인적 발달)의 교과군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론 차원에서 9개의 공통 역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교과들은 교과의 특수성과 전통에 비추어 3-4개의 고유 역량을 별도로 제시하여 교과 교육과정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역량과 공통 역량과의 연관성을 명시함으로써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범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별교과들의 고유역량을 두어 교과지식과 공통역량, 교과 개별역량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6)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우리나라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에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self-directed person),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creative person),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cultivated person),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global-minded person)을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교과공통역량으로 기초능력, 자주적(평생)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협동능력, 문제해결능력, 민주시민의식, 비판적 사고력, 사회적 책임의식, 창의적 사고력, 진로탐색(개척)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Lee et al.(2009)은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개인적 역량, 학습역량, 사회적 역량의 3개 대범주로 재구조화하고, 개인적 역량에는 자기관리능력, 기초학습능력, 진로개발능력을, 사회적 역량에는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대인관계능력, 창의력을, 학습역량에는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능력을 요소로 설정하였다. Lee et al.(2012)는 인성 역

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의 3개로 범주화 하고, 인성역량에는 도덕적 역량, 자아정체성, 자기인식, 개방성, 이해심, 배려윤리 등, 지적역량에는 창의적 사고능력, 학습역량 등, 사회적 역량에는 사회생활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핵심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로 보았다.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총론 재구조화 연구(Lee et al, 2013)에서는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지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역량에는 자기관리, 사회적 역량에는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대인관계능력을, 지적역량에는 창의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 및 활용능력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 요소들을 OECD의 역량기준에 맞추어 <Table 2>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사례국가의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총론에서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개발되어져야할 범교과적인 역

Table 2. Key competencies compared with DeSeCo and of the respective countries

	OECD(2002)	New Zealand(2007)	Australia(2013)	United Kingdom (2007)	Canada Quebec(2004)	Korea(2009)
Ideal portrait of human being / Curriculum a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fident, Connected, actively involved, lifelong learn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ccessful learners</li> <li>Confident and Creative individuals</li> <li>Active and informed citize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ccessful learner</li> <li>Confident individuals</li> <li>Responsible citize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struction of World-view</li> <li>Construction of identity</li> <li>Empower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lf-directed person</li> <li>Creative person</li> <li>Cultivated person</li> <li>Global-minded person</li> </ul>
Key-competencies	<b>Using Tools Interactively</b> 1. Use language, symbols and texts interactively 2. Us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ractively 3. Use technology interactive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ing languages, Symbols, and Tex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teracy, Numera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pabil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plication of number</li> <li>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ellectual competenci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pability</li> <li>Methodological competencies effective work selection skill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pabil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sic skills**<sup>1)</sup></li> <li>Autonomous lifelong learning capability***</li> </ul>
	<b>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b> 1. Relate well to others 2. Cooperate, work in teams 3. Manage and resolve confli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elating to others</li> <li>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tercultural understand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unication</li> <li>Working with oth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sonal and social competencies</li> <li>Communication-related competenc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unication skills*, **</li> <li>Cooperative skills*</li> </ul>
	<b>Acting Autonomously</b> 1. Act within the big picture 2. Form and conduct life plans and personal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Ethical understand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naging sel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blem solv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blem solv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blem solving*, **</li> <li>Democratic citizenship**</li> <li>Critical thinking***</li> <li>Social responsibility***</li> </ul>

	OECD(2002)	New Zealand(2007)	Australia(2013)	United Kingdom (2007)	Canada Quebec(2004)	Korea(2009)
	3. Defend and assert rights, interests, limits and nee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ink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inking skill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itical judgment, Creativ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eative thinking**</li> <li>• Career exploration skill ** ,***</li> </ul>
Impl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uring beginning of elementary education, through 'relating to others' program, it shows the possibility of competencies being a subject matt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oss-curricular competence</li> <li>• Links to other learning areas</li> <li>• 3 strands for integration in units or learning activit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arning in Cross-curriculum dimens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moting integrated learning</li> <li>• Systematization of a school as consecutive cycles</li> <li>• Evaluation as an integrative component of curriculum</li> <li>• Recognizing teaching as a professional activity</li> <li>• Making classroom and school as a learning community</li> <li>• Approach to teaching and learning: thematic approach, cross-curricular approach, interactive ways of learning</li> </ul>	

1) 참고: \* 초등, \*\* 중등, \*\*\*고등

량을 별도의 범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OECD의 역량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에서 타인과 관계 형성, 협동, 갈등 관리 및 해결과 자율적 행동역량에서 자기의 권리, 관심, 한계, 욕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등은 개인적·사회적 영역에 속한다. 각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며 주요국의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에서도 학습자의 개인·사회적 역량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ECD의 역량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을 모든 역량 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각 나라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은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DeSeCo 프로젝트의 영역 틀을 기준으로 나열된 각 국가별 핵심역량요소들은 DeSeCo에서 분류한 세 영역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사례국가들에서 타인과의 소통, 사회적 공헌, 자율성, 시민적 역량과 같은 요소들을 미래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핵심역량이 지적·인성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량요소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총론 수준에서의 핵심역량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교과교육 측면에서 Choi et al.(2009)은 실과(기술·가정)에서의 핵심역량 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Choi et al.(2009)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구성체제별 내용(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이 실생활과 연관되었고 핵심역량과 관련되

어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앞으로 길러야 할 핵심역량은 문제해결능력으로, 교과 특수 핵심역량에는 실생활활용능력, 의사결정능력, 실생활 적용력, 반성적 사고, 도덕성, 윤리의식, 기초 생활 수행 능력, 가치 판단능력을, 앞으로 강조해야 할 교과 특수 핵심역량에는 비판적 사고력, 공작적 능력, 윤리의식, 통합 능력, 실천적 추론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08)에서 제시한 초·중등 교육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하위요소와 Choi et al.(2009)에서 제시한 가정과를 통하여 길러야 할 핵심역량 하위요소는 <Table 3>과 같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중등 핵심역량에는 자기관리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진로개발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Lee et al.(2009)에서 교과별로 강조하는 핵심역량을 살펴본 결과 실과(기술·가정)에서는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진로개발능력 등이었고, 역량별로 살펴본 결과는 실과(기술·가정)에서는 진로개발 능력이 특히 강조되고 있었다. Lee et al.(2012)은 미래 교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제시된 각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할 핵심역량 요소(안)에서 교과의 핵심역량을 전체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바라보

Table 3. Sub-elements of Key Competencies Suggested for Korean in General and Home Economics

Key Competencies	Sub-elements of Key Competencies	
	Choi et al.(2009)	Lee et al.(2008)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skill Creative thinking disposition	Creative thinking skill Creative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Practical problem solving Solving technical problems Decision-making skills Log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Practical problem solving, Solving technical problems
Communication	Speaking / Listening / Writing Reading, Communication through the medium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	Information gathering, Information analysis,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ethics, Medium literacy	Information gathering, Information analysis,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ethics, Medium literacy
Interpersonal skills	Understanding of others, Respect for co-operation, Conflict management, Relationships, Leadership	Understanding of others, Respect for co-operation, Conflict management, Relationships, Leadership
Self-management skills	Establish identity, Recreation, Health care, Reasonable economic life, Basic living habits,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Basic life knowledge, Harmonization of family life and work skills, Rational consumption and resource utilization	Establish identity, Recreation
Basic learning skills	Basic reading, Basic writing, Numeracy, Inquiry skills, Ability to use Tools, Ability of applying knowledge	
Citizenship	Sense of community, Law-abiding, Spirit and environmental awareness, Ethics, Spirit of service, Technical knowledge	Sense of community, Law-abiding spirit and Environmental awareness, Ethics, Spirit of servi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ultural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ur cultur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njoy Cultural Competenc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standing, Foreign language knowledge	Understanding our cultur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njoy cultural competenc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standing
Career development skills	Career awareness, Career exploration, Career design, Professional ethics	Career awareness, Career exploration, Career design, Professional ethics

고, 실과에서 개발해야할 핵심역량을 진로개발능력, 정보 활용 능력, 자기관리능력으로 제안하였다.

DeSeCo 프로젝트가 핵심역량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이후 그 범주에 따른 분류가 보편적으로 활용된 바와 같이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의 핵심역량의 3가지 범주인 인성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또한 그 이후의 여러 연구(Lee et al, 2013; Lee et al, 2014)에서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 2. 핵심역량과 교육과정 요소와의 관련성

### 1) 핵심역량과 가정과 교육을 통한 인간상

선행연구(Lee et al., 2012; Kwon et al., 2013; Lee et al.,

2013)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구상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선행되어야한다고 하였다. 외국 교육과정에서 인간상은 교육목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과 그러한 인간상이 구비해야할 핵심역량의 종류, 내용 및 의미를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과정 총론은 비전, 교육의 기본원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 등의 15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전에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과 가치에 제시된 목표와 핵심역량의 요소들이 관련성을 띠며 일관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적 인간상은 총론에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교과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역량까지 일관성 있게 연결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인간상은 정해진 틀이나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

나라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길 원하는가에 따라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고 있기에 추구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필요가 있다.

So(2009)는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교육적 성격을 지니는 역량 중심교육에서 목표는 단순한 이론적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능력, 태도이며, 지식을 사회가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것과 직접 관련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처한 역할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역량은 전인, 즉 유능한 사람이 되는 데에 요구되는 능력(Ewens, 1979, 174-175; So, 2009, 10 재인용)으로 보았다.

Yoo와 Lee(2010)는 가정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개념을 빌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phronimos)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천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최고의 선을 구체화하는 행동(praxis)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때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최고의 선인 모두의 안녕이란 무엇인가와 이것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참된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이치에 따르고 심사숙고·선택·결정·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행동(praxis)에 이를 수 있는, 즉 개인 및 가정생활에서 잘 행동하고 잘 사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Yoo, 2007, 24)”이며 여기서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성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에 관해 잘 살필 수 있는 것”과 “인간을 위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해서 참된 이치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Yoo, 2010, 18)이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항상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자율인인 동시에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할 것이기에 가정과 사회의 항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상이 가정과 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핵심역량과 가정과 성취기준

핵심역량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살펴보면 여러 나라에서 역량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교과교육과정을 ‘기준’(내용기준,

성취기준, 수행기준 등) 형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서 기준은 학생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고 학생이 ‘알기를 바라는’은 ‘개념적 지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절차적 지식’을 나타내며(Solomon, 2009; Paik, 2014, 7 재인용), 교과별 기준은 ‘교과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단’(Yoon, Park & Lee, 2008)으로 보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한 것이나 평가기준을 3단계(상, 중, 하)로 제시한 것에는 동일하나,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을 하나의 표로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과 성취기준과 예시 평가도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Kwon, Kim, Lee & Yun, 2013).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과정 문서보다 명사형으로 간략하게 제시한 내용체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명료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서의 항목이 제시되었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성취기준이 교과 성격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2009년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우리나라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목표, 핵심역량, 성취기준 구조상 위계는 상위체계가 하위체계를 포괄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각 하위체계를 종합하여 혹은 통합하여 서술한 것이 상위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위체계의 문장이 길고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각각의 하위체계의 성취기준을 통해 상위체계인 가정과 목표 및 핵심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Kwon et al., 2013).

2015년 9월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2015 4월 발표된 실과(기술·가정)시안(KICE, 2015)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은 교과 역량은 하위요소와 기능의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성취기준 진술에서도 교과역량, 기능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준에서 알아야 할 것은 교과지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은 교과의 기능을 나타내므로 성취기준은 교과지식과 기능 차원이 연결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고, 학생이 달성해야 할 능력 즉 교과별 역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3) 핵심역량과 가정과 교수·학습

선행연구(Lee et al., 2009; Hong et al., 2010)를 살펴보면 국내의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구현하기 위해 교사들이 주제중심접근(thematic approach), 범교과적 접근(cross-curricular approach), 탐구학습, 발표학습, 팀 과제, 토론 등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교수학습 방식을 활용하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방법을 강조한다. Lee et al.(2013)은 핵심역량은 전통적으로 교육과정 분야에서 중시되어 왔던 일반적·개념적·학문적 지식(learning to know)뿐만 아니라 작동적·절차적 지식(learning to do), 지적조작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cognitive know-how and skills), 대인관계를 위한 지식(learning to live together or social skills), 가치 및 태도(learning to be), 경험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신체능력 문화 등을 망라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들(Hong et al., 2010; Lee et al, 2007; Lee et al., 2013)에서 총론 차원에서 역량개발의 중요성과 의미,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량을 제시하되, 교과와 성격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사의 능동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실효성과 교사의 책무성을 요구하며 일관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역량과 학습 영역 간, 교과 영역과 교과 외의 학습 영역 간, 교과 영역 상호 간에 다양한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역량별로 자기관리나 의사소통, 진로개발과 같이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역량이 있는 반면, 창의력이나 사고력과 같이 적용이 어려운 역량도 있기에 뉴질랜드의 경우 핵심역량을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고 교육과정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이나 다양한 정보를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교수·학습에 대해서 ‘효과적인 교수법’이라는 교과공통의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교사의 행위를 여섯 개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여섯 개의 항목은 지원적 학습환경 조성하기, 성찰적인 사고와 행위권장하기, 새로운 학습의 관련성 증진하기, 공유된 학습도모하기, 충분한 학습기회 제공하기, 탐구로서 가르치기이다.

So(2015)는 개별 교과와 맥락에서 역량은 학습자가 그 교과

를 배웠을 경우 응당 보여주어야 할 그 교과 고유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측면에서의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교과 교육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역량은 일반적 혹은 범교과적인 역량이 아니라, 교과 특수적 역량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과에서 Chae et al.(2010)은 미래의 가정과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 돕고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되는지 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판하여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식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토론교육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은 교과의 철학을 바탕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할지’에 대해 더욱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 시사점

새로운 미래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대두되고 있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역량은 학습자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만의 강조로는 도달하기는 어려우며 각 영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수행과 관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what people can do)’를 강조하는 역량중심적 접근은 쉽게 행동주의적 접근으로 비판받게 되는 요소기도 하다. 역량은 지식, 기술, 자아개념, 가치, 동기 등의 인지적·정의적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념을 정교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능(skill)과 관련하여 ‘할 수 있어야 하는’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단순기술에서 고등사고력까지 포함하

는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

둘째, 교과 역량은 핵심역량, 교과하위요소, 기능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학습 영역의 내용 간 연결성을 부호로 표시하고, 학습 영역의 내용과 일반 능력, 법교육과정 주제와의 연결성을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역량이 각 교과와 기능을 반영하여 교과 특수 역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연결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호주사례에서 시사하듯이 핵심역량과 교과하위요소와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연관성 없이 나열되기보다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 지식과 교과 내용이 제시되거나 그 필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15 개정시안(KICE, 2015)에서는 핵심 개념 중심으로 내용요소와 성취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영역과 핵심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개념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역량을 고려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성취기준을 통해 교과의 성격이 드러내고 지식간의 관련성이 나타나도록 지식들이 구조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조적인 차이는 있지만 총론을 통해 목표와 핵심역량을 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실천적 추론과정과 과정질문(사고, 의사소통, 리더십, 관리)으로 구성되어 ‘행동을 위한 추론 기준’에서 내용기준과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로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성취기준(NASAFACS, 2008)은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육내용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면 이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는 역량 개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평가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측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 평가가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역량에 적합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평가의 과정과 개별적인 학생들의 변화 정도를 중시하는 과정적 평가나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가정과 교수·학습 면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수업을 통해 적절히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현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가정과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의 개발이나 교사교육과 같은 충분한 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별 사례를 통해 볼 때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적용은 통합교과적인 학습활동이나 프로젝트수업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학생의 사고는 교과 지식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맥락에서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실천적 추론이나 문제중심 수업으로 설계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고 내용, 수업, 평가가 일관성 있게 설계되는 ‘백워드 디자인’(backward design)은 좋은 수업설계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핵심역량의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와 해당 연구경향을 반영한 학술연구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핵심역량에서 강조하는 요소들과 핵심역량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나라에서 강조되는 핵심역량요소들을 OECD의 역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OECD의 역량을 각 나라별로 종류나 범주를 달리하여 제시되고 있었다. OECD의 틀과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뉴질랜드이며, 각 교육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범교과 영역은 주로 인성이나 역량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간학문적,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교과영역은 개별 교과를 통해서 지적 역량이나 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제시하고 있었다. 국가에 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처럼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캐나다와 호주와 같이 범교과 영역으로 교수학습 접근을 통해 ‘교과 영역’과 ‘폭넓은 학습영역’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핵심역량을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 교과에서 살펴본 결과에서 가정교과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의 전체 요소들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가정교과가 강조해야할 핵심역량으로는 진로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능력으로 나타나 교과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역량은 교과의 성격과 관련한 교과특수역량을 고려해야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을 고찰한 결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인간상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에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기존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비판적 패러다임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격, 소양도 변화하여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자질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항상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스스로의 가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자율인인 동시에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할 것이기에 가정과 사회의 항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상이 가정과 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상정한 이래 가정과 교육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인간상과 관련한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핵심역량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과 교유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성취기준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결과, 성취기준 개발에 있어 교과 성격, 목표, 성취기준과의 위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취기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활동의 예를 제시하고 평가기준을 3단계로 제시하였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내용, 성취기준, 평가기준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여 평가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Kwon et al.(2013)은 성취기준 연구는 교육과정 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과 전체 영역에 따른 내용 체계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총론의 범주 하에 개발되고 있으므로 개발 범위가 한정된다고 하였다. 성취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학습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기능이나 다양한 맥락으로 반영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수행을 알아보는 절차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성취기준은 지식이나 낮은 수준의 이해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위계적인 이해, 해석, 관점, 연민, 자기 지식이 간과되지 않도록 가정교과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량, 목표, 내용체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연계

성을 고려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넷째,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수학습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결과, 다른 국가들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전통적인 학문분야만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관련된 학습영역을 통합하거나 학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교육과정을 위한 설계의 틀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범교과적 내용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교과영역을 초월하여 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교과를 통해 학습자의 깨우침, 비판적 사고, 창의력 추론과 같은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가정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정(process)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과정을 구현하는 교사의 인식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연관성을 알아본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정교과 교유의 성격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가정과 교육에 있어 역량이 갖고 있는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시된 역량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교육적 기능은 무엇인지, 이러한 연구들이 교육과정에 기여하는 순환적 구조가 모색되어야 가정교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실행자인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서 변형시키는 기제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과정을 위해 활발한 교과 간 연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강화와 수업컨설팅, 교수학습공동체가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스스로도 교육과정의 맥락에서 재구조화를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인식해 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ACARA (2013). *General capabilities in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from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 GeneralCapabilities/Pdf/Overview on May 1, 2015.
- Chae, J. H., Lee, S. H., & Yoo, T. M. (2010). Social contribution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139-154.
- Cho, D. Y., Kim, H. K., & Kim, H. B. (2008). *Core competencies toward the learning society in the futur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Choi, Y. H., Yoo, T. M., Moon, D. Y., Choi, J. Y., & Kang, K. K. (2009). *A study on the model restructure of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to develop korean's key competencies in. the futur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 (2007).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framework docu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framework document*.
- Hong, W. P., Lee, G. O., & Lee, E. Y. (2010). *Exploring how to implement competence-based curriculum in korean schools: based on foreign case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Jang, M. H. (2014). Fundamental research to investigate methods of vocational competency enforcement in field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revision of the current NCS based vocational highschool education curriculum and investigation in change of direction in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29-146.
- Jin, E. N., Gwon Y. J., Jeon S. G., Wang, S. S., Kim, E. J., Choi, J. Y., Kim, J. W., Lee S. B., & Song, I. M. (2013).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 key achievement standards subject based on amended curriculum in 2009*.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5). *2015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개정 시안 공개 토론회*. 2015년 4월 17일.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won, Y. J., Jin, E. N., Lee, E. K., Jeon S. G., Choi, J. Y., Wang, S. S., Lee S. B., & Lee, Y. J. (2013). *Exploring direction of national level for the future society curriculu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Compte, M., & Preissle, J. (1993).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 reseach*(2nd ed.). London: Academic Press Ltd.
- Lee, J. K. (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Kyowukkwahak.
- Lee, K. H., Kwak, Y. S., Lee, S. M., & Choi, J. S. (2012). *Design of the competencies-ba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future society*.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Lee, K. H., Kim, K. C., Kim, S. H., Kim, H. M., Lee, M. J., Lee, S. H., & Lee, I. J. (2013). *Improvement plan of the subject curriculum based on the key competencies-focusing on the alignment of curriculum,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educational assessment*.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Lee, K. H., Lee, K. W., Park, J. M., & Park, M. J (2013). *Restructuring plan of the curriculum based on key-competenc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Lee, K. W., Min, Y. S., Jeon, J. C., Kim, M. Y., & Kim, H. J. (2008). *A study on developing a key competence in the primary/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the future of koreans(II): - focused on the establishing sub-domains and components for key competencies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Lee, K. W., Jeon, J. C., Hu, K. C., Hong, W. P., & Kim, M, S. (2009). *Redesigni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developing future koreans' core competence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Lee, S. H., Park, D. Y., Park, S. W., Choi, I. B., Goo, N. W & Lee, E. Y (2014).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assessment policy to support teaching of 21<sup>st</sup> century skill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 Lee, Y. S. (2006). *Theory and practic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ul: Shinkwang.
- McClelland, D. (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 (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Ministere de l'Education(2004). *Quebec education program : secondary cycle two*. Ministere de l'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008).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 OECD (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OECD Press.
- Paik, N. J. (2014). Review of subject-specific competency based standards: Focusing on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australia, canada, singapore.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163-194.
- Paik, N. J.& Ohn, J. D. (2014). The meaning of standards and performance in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4), 17-46.
- Park, M. J. (2009).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ence-based curriculum and its critical issu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4), 71-94.
- Rychen, D. S., & Salganik, L. 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hon, M. H. (2006). Competence, and everydayness of practical knowledge as its practical found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4), 1-25.
- So, K. H. (2006). An investigation on new approaches to curriculum design f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4(3), 39-59.
- So, K. H. (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1.
- So, K. H. (2009). Curricular-historical base and its liberal nature of competence-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7(1), 1-20.
- So, K. H. (2010).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academic discipline and school: Its implications on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3), 107-125.
- So, K. H. (2015). Issues in the general guideline draft for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maining tasks for subject matter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1), 195-214.
- Song, K. O., & Park, M. J. (2007).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bility of competence-based education reform.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4(4), 155-82.
-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ung, Y. K. (2014). Global norms and local appropriation of the core competency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3), 22-44.
- Yoo, T. M. (2003). A basic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econdary home economics curriculum on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structure of home economics, literacy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I): A delphi stud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0), 149-171.
- Yoo, T. M., & Lee, S. H. (2010). *Practical problem focused family & consumer sciences instruction-the theory & practice*. BookKorea.
- Yoon, H. J., Park, S. W., & Lee, K. H. (2008). *Research on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national curriculum*.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research.
- Yun, H. J., Kim, Y. J., Lee, K. W., & Jeon, J. C. (2007). *A study on developing a key competence in the primary/secondary school curriculum for the future of korean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research.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핵심역량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핵심역량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핵심역량과 가정과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2개 연구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와 2개 학회(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서 출간된 26편의 문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역량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을 OECD의 역량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살펴본 결과 각 나라별로 종류나 범주를 달리하여 제시되고 있었다. 교과영역은 개별 교과를 통해서 지적 역량이나 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인성이나 역량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간학문적,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 가정과 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가정과 사회의 항구적인 문제를 자율적이고 실천적인 인간상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가정과 교육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인간상과 관련한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고 어렵다. 셋째, 성취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학습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교과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량, 목표, 내용체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일관된 진술이 요구되고 있었다. 넷째, 교수·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 등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관련된 학습영역을 통합하거나 학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교육과정을 위한 설계의 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06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7월 21일